

MIBK, 삼영무역 때문에 망쳤다!

금호P&B화학 부분파업 따른 심리적 요인도 물거품 ... 가격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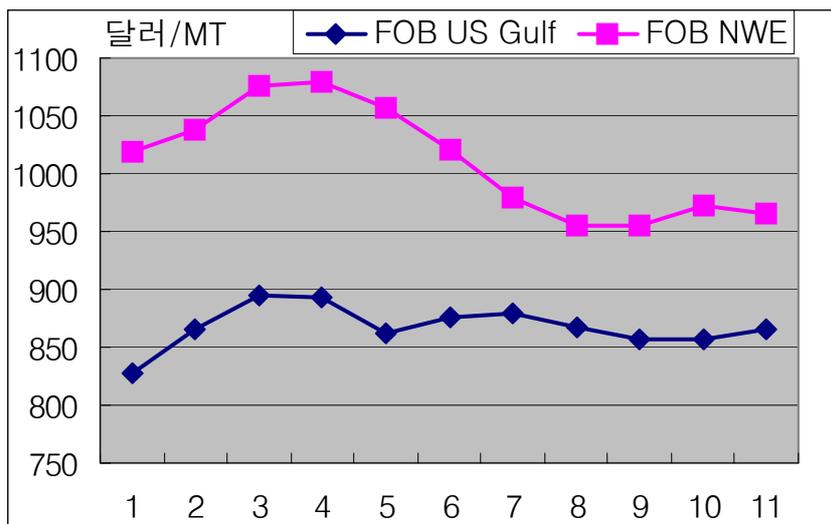
Bulk 톤당 127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됐던 MIBK(Methyl Isobutyl Ketone) 가격이 11월 톤당 12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P&B화학 관계자는 “11월 MIBK 가격이 경인지역 도착 기준가 Bulk 톤당 125만~127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요가 줄어 평균 125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MIBK는 합성수지, 자기테이프, 레계용제, 탈유제, 추출용제 및 페인트용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큰 수요처인 페인트 시장이 7-9월까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태풍피해 복구가 시작되는 시기였던 10월부터 대수요처인 페인트 시장이 일부 활성화돼 MIBK의 수요가 일부 늘어나 추가 가격상승이 예상됐으나 10월 삼영무역을 통해 공급된 Celanese 제품 때문에 톤당 12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MIBK 가격추이(2003)



12월 MIBK 가격은 금호P&B화학의 노사분규 진행에 따른 심리적 공급 불안정성 요인과 MIBK를 공급하는 Mitsui Chemicals, Dow Chemical 등의 공급물량이 타이트한 것으로 파악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P&B화학 관계자는 “12월 금호P&B화학의 MIBK 공급이 Shortage 상황은 아니나 타이트하고 12월이 비수기지만 최근 MIBK 입찰가격이 kg당 30-40원 정도 인상된 것을 감안해 12월 MIBK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MIBK가 12월에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소폭 가격인상보다는 오히려 보험세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했다.

MIBK는 2003년 시장규모가 1만7300톤으로 2002년 수요비중은 페인트용이 전체의 67%, 공업약품 20%, 기타 13%를 나타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